

새 거래처 건이 떨어진 것은 지난봄, 금요일 오후였다. 사무실은 주말을 앞두고 반쯤 풀려 있었고, 팀장은 복사기 옆 화이트보드에 일정표 귀퉁이를 비워 이름 쓸 자리를 만들었다. 새로 뚫린 납품처와 첫 분기 물량을 조율하는 일이었다. “이건 박 대리가 맡아 줘요. 다음 달 초까지.” 보드마카 뚜껑 닫히는 소리가 났다.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려다 나를 돌아보았다. “남은 하나는, 이거 할 수 있겠어요?” 나는 반 박자 늦게 대답했다. “네, 할 수 있습니다.”

정확한 비교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. 박 대리는 나보다 반년 먼저 들어왔고, 맡아 온 거래처의 결도 조금 다르다. 그런데도 그날 퇴근 버스에서 나는 그 짧은 장면을 몇 번이고 되감았다. 회의랄 것도 없는, 삼 분짜리 배정이었다. 박 대리의 대답은 한 글자였고, 내 대답은 일곱 글자였다. 그는 “네”와 함께 곧장 일을 시작했고,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을 먼저 내놓은 다음에야 시작했다. 여섯 글자 차이만큼, 나는 매번 조금씩 늦게 출발하고 있었다.

그 뒤로 사무실에서 말이 배달되는 경로를 눈여겨보게 되었다. 이월 결산으로 다들 늦게 가던 주간, “집은 괜찮고?”라는 걱정은 내 자리와 건너편 윤 과장 자리 앞에서만 멈췄다. 가을 박람회 출장 명단을 짜던 날에는 “일박인데 괜찮겠어?”가 또 내 앞에서 한 번 멈췄다. 질문들은 하나같이 다정했고, 하나같이 한 방향으로만 왔다. 받는 쪽은 매번 웃으며 “괜찮아요”하고 대답했고, 그 대답에도 준비가 필요했다. 박 대리 모니터 옆에도 아이 둘 사진이 붙어 있다. 그 사진 앞에서 그런 걱정이 멈추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. 그가 아이를 덜 사랑해서는 아닐 것이다. 그의 저녁은 애초에 누구의 계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을 뿐이다.

지난겨울,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서 주임에게 정산 업무를 넘기던 날이었다. 복귀 첫 주였고, 그새 바뀐 전산 화면을 서 주임은 반나절 만에 따라잡고 있었다. 인수인계 파일을 열어 놓고,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다. “이거, 할 수 있겠어?” 서 주임은 반 박자 멈췄다가 대답했다. “네, 할 수 있습니다.” 그 반 박자를 나는 안다. 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시간이 아니다. 이 질문이 왜 또 나에게 왔는지를 조용히 삼키는 시간이다. 여러 해 동안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, 이번에는 내가 묻고 있었다. 모니터 불빛에 비친 얼굴이 잠깐 낮설었다.

그날 저녁 인수인계 문서를 덮으며, 일을 건네는 내 문장부터 고치기로 했다. 거창한 결심은 아니었다. 문장 끝에서 물음표 하나를 떼어 내는 일이었다. 처음에는 입에 붙지 않았다. “할 수 있겠어?”는 짧고 편해서 자꾸 혀끝까지 올라왔고, 나는 그 말을 삼키고 마감과 순서를 말하는 연습을 했다. 봄 정기 감사 준비를 나누던 날, 서 주임 몫의 항목을 짚으며 말했다. “이건 서 주임이 맡아 줘요. 마감은 이십일. 막히는 게 있으면 수요일에 중간만 한번 봅시다.”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대신 언제 어떻게 도울지를 말했다. 걱정을 버린 것이 아니라 걱정이 도착하는 순서를 바꿨다. 확인은 일을 맡기기 전이 아니라 일이 굴러가는 중간에 해도 늦지 않았다. 서 주임은 “네”하고 수첩을 폈다. 불펜 끝이 곧장 다음 주 수요일 칸을 짚었다. 대답을 준비하던 반 박자가 사라진 자리에서, 일정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었다.

지난주에는 파티션 너머에서 서 주임이 새로 온 인턴에게 자료 취합을 넘기는 소리를 들었다. “이건 최 씨가 해 줘요. 모레까지. 막히면 바로 나한테 묻고.” “네, 모레까지요.” 대답이 짧았다. 그 짧은 대답이 파티션 이쪽까지 시원했다. 종이 넘기는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가

이어졌고, 누구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은 채 오후가 흘러가기 시작했다. 나는 모니터로 눈을 돌리며, 다음에 내가 건넌 문장의 끝을 속으로 한 번 더 다듬었다.